



“30년 후, 농민인 나에게 매월 50만원의 소득이 주어진다면?”

강마야 _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박경철 _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



지난 7월 어느 여름날, 충남연구원에서는 하나의 실험을 하였다. 농민기본소득을 주제로 하여 소설픽션기법¹⁾을 활용한 “농민기본소득제 상상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올 상반기 진행된 <충남형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의 마지막 연구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농민기본소득은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농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를 겪고 있는 우리의 농촌 현실에서 농업직불제를 보완내지 대체하는 새로운 농가소득보장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상상워크숍은 농업과 기본소득에 관심이 많은 분들과 함께 그 동안 연구과제의 결과와 고민을 소개하고 향후 농민기본소득이 실현될 경우 우리 사회, 우리 농촌이 어떻게 변화될지 상상해 보았다. 연구원 내 전략과제 연구로만 끝나지 않고 다양한 구성원과 함께 모여서 색다른 기법의 워크숍을 진행하였기에 그 결과를 널리 공유하고자 한다. <집필자 주>



자, 이제 이 글을 읽는 당신도 잠시 농민이 되어서 30년 후 국가로부터 매월 50만원의 소득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한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자!

기본소득제란 국가(혹은 지방정부)가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시도하는 움직임이 있다. 대표적으로 성남시는 최근 “청년배당” 시행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검토 중에 있다. 오늘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기본소득제”이다. 즉, 국가(혹은 지방정부)가 농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농가 혹은 개별 농민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농민기본소득의 쟁점으로는 ① 지급대상으로서 농민이 우선인가? 농촌주민이 우선인가? ② 지급방식으로서 개별 농민 단위로 지급? 농가가구 단위로 지급할 것인가? ③ 기존 농업직불제와의 통합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④ 지급 기준으로서 소득 및 재산(토지 포함)과 연계할 것인가? ⑤ 지급대상의 연령기준으로서 청년층 먼저 실시? 노년층 먼저 실시할 것인가? ⑥ 마을단위 시범사업으로서 일반마을을 시범사업으로? 조건이 불리한 마을(한계마을, 오지마을)을 시범사업으로 할 것인가? 등이 있다.

따라서 상상할 주체의 핵심은 “30년 후, 농민인 나에게 국가가 매월 50만 원씩 돈을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이다. 각자가 농민이 되었음을 상상하고 미래에 대한 상상, 변화된 사회에 대한 상상, 변화된 미래의 모습에 맞는 새로운 평가기준의 마련, 미래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키워드를 도출해 보자!

이에 따라 도출된 키워드를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경제적 측면, 공동체 활동측면, 농업생산 활동측면, 개인생활 측면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세부 키워드는 [표 1]과 같다.

1) 소셜픽션은 그린뱅크의 창시자 무하마드 유누스의 제안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구체화된 미래상상의 방법으로서 상상테이블은 누구나 함께 모여 현실의 제약사항에 얽매이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공동체의 미래를 상상하기 위한 소셜픽션을 그려보는 것이다. 모든 규칙과 원칙은 잊더라도 모임을 진행하면서 모두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게 중요하다.(희망제작소, 2015).



[표 1] 미래상상 키워드

영역	키워드
경제적 측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안 해도 되기, 경조사비 등 돈 들어갈 일에 부담을 덜 느끼기, 끼니걱정 걱정 덜하기, 병원비 걱정 덜하기, 빚을 안지기, 생계걱정 안하기, 생활비에서 해방 혹은 은퇴하기, 손자와 손녀들에게 용돈주는 멋진 할머니 되기
공동체 활동측면	농민연극팀을 만들어서 연극공연 하기, 돈이 없으면 친구를 못 만나는 경우가 있기에 친구들 만나고 어울리는데 사용하기, 마을 사람과 여행가기, 마을 종자돈 모으기, 마을기금 마련, 마을도서관과 카페만들기, 사람을 모아 작은 극장만들기, 식가공품 만들기(술, 수제식품 등), 십사일반 이웃돕기, 지인초대하기, 학교 만들기, 협동조합 시네마파크 만들기
농업생산 활동측면	공동으로 밭에서 농산물 재배하기, 공장부지 대신 농토 증가, 귀농권유, 농민 증가, 농민사위 맞이하기, 농사가 잘되든 못되는 불안하지 않기, 농자재 구입, 농지구입,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기, 무이자예금을 해서 어려운 사람이 돈을 쓸수 있게 하기, 아들과 함께 농사짓기, 좋아하는 농작물 심기, 주 4일만 농사일하기, 형제에게도 농민 권유하기, 후계세대를 양성하는 강사로 활동하기
개인생활 측면	개인 저금 더 하기, 공간을(집을) 가꾸기, 빚을 갚기, 애들 용돈 더 주기, 여행하기, 저축하기, 집 가꾸기, 집수리 및 황토방 만들기, 책을 더 사기, 노년기 치매예방을 위해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는데 사용하기, 매달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므로 농한기에는 쉬기, 여행가기, 일부를 모아서 문화향유 활동에 사용하기, 자유로운 가족의 구성, 플라이요가로 건강을 유지하는 할머니 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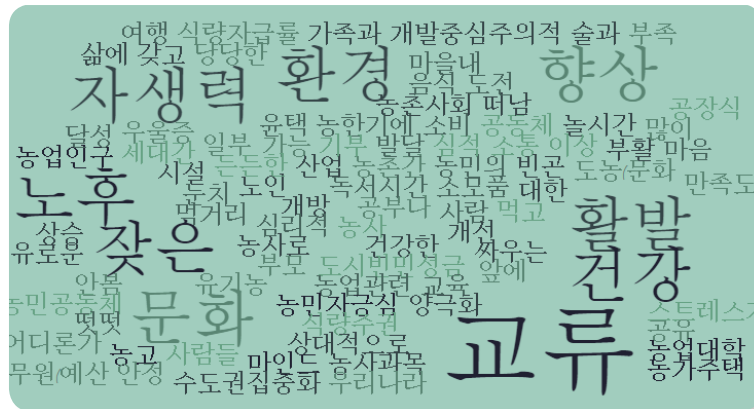
주 : 참가자들의 메모지에 남긴 글들을 가급적 가감없이 정리한 것임(이하 상동)

이제 미래의 모습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삶을 다시 상상해보는 것이다. 도출된 키워드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경제적 측면, 공동체 활동측면, 농업생산 활동측면, 심리적 측면, 지역사회 측면 등으로 나눌 수 있었다. 세부 키워드는 [표 2]와 같다.

“30년 후, 농민인 나에게 매월 50만원의 소득이 주어진다던?”

[표 2] 변화상상 키워드

영역	키워드
경제적 안정	공무원(예산) 눈치 안 보게 된다, 공부나 독서할 시간이 많아진다, 노후가 든든하다, 노후가 안정 된다, 농한기에 긴 휴가를 간다, 다양한 도전을 하게 된다, 당당한 부모가 된다, 더 잘 떠나게 된다, 먹거리가 다양해지게 된다, 소모품을 덜 소비하게 된다, 여행을 많이 간다, 자식 앞에 떳떳해진다, 잘 먹고 잘 자게 된다, 직업이 다양해진다, 피부가 좋아지게 된다
공동체 활동측면	건강한 환경이 된다, 경조사 참여에 더욱 적극적으로 된다, 농민공동체 활성화된다, 도농 간 교류가 활발해진다, 농촌사회에 청년들이 증가하게 된다, 더 많이 나눈다(재화, 지식, 서비스), 마을내 공동이용 시설이 늘어난다, 사람들과 더 잘 만나게 된다, 세대 간 소통이 활발해진다, 술과 음식이 다양해진다, 좀 더 평등하고 개방적인 문화가 생긴다, 지인들과 자주 만난다, 회의가 많아진다
농업생산 활동측면	공장식 축사가 줄어든다, 농민들이 도시빈민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하게 된다, 농업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하게 된다, 농업인구 증가로 우리나라 식량자급률 70% 이상 달성된다, 식량주권의 확보가 가능해진다, 자급률 향상된다
심리적측면	가족 다 놀시간이 많아진다, 고독사가 감소한다, 내 눈에 물을 안대줘도 화 안낸다, 농민의 자긍심이 높아진다, 마음의 안정화가 된다, 만족도 증가하게 된다, 불안하지 않다, 사람들과 얼굴 붉히는 일이 없어진다, 사람들이 건강해진다, 상대적으로 행복해진다,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심리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우울증 치유하게 된다, 자부심을 갖고 유기농 농사를 짓는 사람이 늘어난다, 자생력이 증가한다, 짜증내는 일이 줄어든다, 원한이 없어진다
지역사회 측면	고령화 문제가 자체적으로 일부 해소된다, 고부가가치산업위주의 개발중심주의적 마인드가 줄어든다, 노인이 없다, 농가주택이 부족해진다, 농고, 농업대학이 부활한다, 농사증가로 환경이 좋아진다(환경개선, 대기오염감소, CO2감소), 도농(문화, 경제)격차가 감소한다, 빈곤이 해소된다, 수도권집중화가 해소된다, 지역균형발전이 된다, 초중고에서 농사과목 교육하게 된다
기타	자생력이 저하된다, 중산층이 감소하여 양극화된다





[표 3] 평가기준 키워드

[illegible]

“30년 후, 농민인 나에게 매월 50만원의 소득이 주어진다면?”

이를 다시 증가지표와 감소지표로 [표 4]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증가 지표가 많이 나왔고 가족, 농업, 농촌 인구구성, 마을과 지역경제, 학교, 문화, 여가, 직업, 삶의 주관적 만족도, 생명과 건강 지표 등을 도출하였다. 반면, 부채, 실업률, 자살률, 이주농업노동자 등이 감소지표로 도출되었다.

[표 4] 평가기준 중 증가와 감소지표

증가지표 ↑	감소지표 ↓
년대 농촌모습 복원(마을별 학교) 가족구성원 다양화, 가족구성원수 건강한 삶, 계모임수 곡물과 식량자급률 향상 공동농업생산활동 (두레, 품앗이), 공동의식물 농업생산 중 곡물생산비중 향상 농지소유의 변화 : 공동소유 농촌 인구, 1960년대 수준으로 복귀 농촌의 도서관 수, 농촌의 문화공간 수 농촌의 폐교의 재부활, 다문화가정 다양한 주거형태의 출현(주택건설 상승) 도농교류 횟수 마을내 주민자치 및 민주주의 지표 활성화 마을사업 참여율, 마을잔치 횟수, 마을축제 개최횟수 마을회관 방문노인수, 마을회관수 문닫있던 학교 운영재개 활발, 문화생활 시간 물품의 교역량 변화율, 사람들과 전화회수 살면서 웃음횟수, 술소비량 시군별 산부인과 개설 시군별 식량자급 위원회 개설 및 운영 여행횟수, 연중 영화관람시간 외식회수, 우리가 먹는 농산물 개수 유기농 농산물과 문화행사 마을캣 활성화(코벤트 가든) 음악듣기, 인구, 인구유입 인구1만명당 극장 1개 이상 인구의 교통량 변화율, 자립가족적인 삶 장수마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내 마을상업시설, 지역내 서비스업체 (치킨집 · 호프 · 카페 · 피부관리숍 · 네일숍 · 여행사 등) 직업다양성 지표, 직업선호도 1위 농민 차종류나 차량수, 청년귀농숫자율 청년농민 활성화, 청년인구, 초등학교수 출산율, 취미활동시간, 친환경 유기농 농사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텃밭개수, 토지거래량 평균수명기간, 학교수 행복하냐는 질문에 행복하다는 응답율	농가부채 농업생산 중 축산생산비중 농촌노인자살률 대학진학률 병원 진료일수/방문일수 비료, 농약, 제초제살포 스트레스 지수 실업률, 이농률 이주여성, 이주농업노동자 자살률 청년회 가입연령 하향 조정 (예전 40세, 현재 60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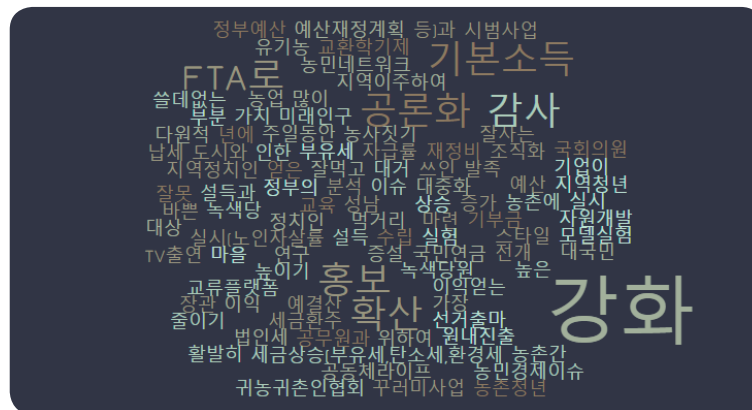
주 : 지표내용들은 가나다순으로 배열함.



변화된 미래, 새로운 평가기준을 도출하였으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주체별, 단계별, 활동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도출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시범사업, 예산·세수 확보, 정책홍보 활동, 정치·정당 활동 등 활동내용 중심으로 구분하였다.

[표 5] 해야할 일 키워드

영역	키워드
시범사업	시범사업 실시(노인자살률 높은 마을 대상)
예산세수 확보	FTA로 이익얻는 부분 환수제도 마련, FTA로 인한 기업이 얻은 이익을 농촌에 환원(무역이득공유제), 국민연금 상승, 기부금 강요, 법인세 강화, 부유세 증설, 세금상승(부유세, 탄소세, 환경세 등)과 납세 증가, 세수확대를 위하여 미래인구 확보(출산율 높이기), 쓸데없는 예산에 대한 감사 강화, 예산재정계획 재정비 및 수립, 자원개발, 토건으로 잘못 쓰인 세금환수, 정부예산의 감시(토건예산 줄이기), 정부의 예결산 감사 강화
정책홍보 활동	TV출연, 국회의원, 장관을 1년에 가장 바쁜 2주일동안 농사짓기 체험, 귀농귀촌인협회 등 조직화, 기본소득 농민네트워크 발족, 기본소득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꾸러미사업 활발히 전개, 농민경제이슈 공론화, 농촌청년 공동체라이프 스타일 대중화, 다원적 가치에 대한 대국민 홍보 교육, 도시와 농촌간 교류플랫폼 만들기, 먹거리 자급률 이슈 공론화, 연구를 많이 해서 확산하는 활동, 유기농 친환경농사 농업의 확대, 잘먹고 잘사는 실험활동, 캠페인을 통한 홍보활동, 학교간 교환학기제(농사체험) 실시, 해외동향 분석 등 연구활동 강화
정치.정당 활동	공무원과 정치인 설득, 녹색당 원내진출, 성남 청년배당지지, 지역정치인 설득과 모델실험 확산, 지역청년 지원, 청년 녹색당원 대거 지역 이주하여 선거출마, 투표(선거)잘하기





“30년 후, 농민인 나에게 매월 50만원의 소득이 주어진다면?”

마지막으로 진행된 순서는 “공유하기” 마당이다. 앞서 진행된 마당을 서로가 직접 대화하면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상상위크숍의 핵심요약 부분이다. 현장사진은 [표 6]과 같다.


미래상상으로는 농민에게 주는 기본소득으로 농업생산 활동에 매진하면서 소득에 얽매이지 않게 되어서 먹거리 다양화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이것은 소비자에게 효과가 이전될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삶 자체에 대한 여유가 생기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면서 개인의 건강과 행복, 만족도는 물론이고 마을이, 지역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상상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을 꿈꿀 수 있다는 희망을 엿보았다.

변화상상으로는 개인한테 지급하는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 개인의 생활영위보다 공동체, 지역사회를 더 변화시킬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당초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사회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미지가 지배적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아닌 지역의 발전, 공동체의 발전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농업 생산 활동에 덧붙여 자기가 하고 싶은 다른 일에 매진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도시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복귀 가능성도 엿보았다.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마을이, 지역이 활성화되는 것이다. 마을과 지역사회에 산업생태계가 다양화, 직업과 도전의 기회의 다양화까지 상상해 볼 수 있었다.

평가기준으로는 변화된 새로운 상상에 맞춰서 기존의 정형화된 기준보다 좀 더 쉽고, 다양하고, 새로운 기준들이 도출되었고 삶의 만족도 지수, 공동체 활성화, 건강한 지역사회를 나타내는 증가지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다. 농촌지역에 폐교되었던 학교의 부활, 문화생활 척도, 친환경 혹은 유기농 방식의 농업생산방식 변경 등과 같은 것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현재의 예산에서 누수되는 지점을 발견하여 절약하는 전략과 시민사회의 감시기능 강화 전략, 현명한 세수 확보 전략, 정책홍보 활동을 지금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전략, 정치가 곧 우리의 삶과 생활을 지배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좋은 정치인을 배출하는 전략, 지역 내 다양한 모델실험 확산 등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이번 상상위크숍을 진행하고 난 뒤 느낀 점은 한 달에 50만 원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상상했다는 것이 즐거웠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상상한 내용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작금의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역설적인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바꾸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은 쉬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긍정적인 태도로 상상해야 한다는 것이고 개인보다 공동체, 마을, 지역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미래만 상상하기에도 우리는 시간이 모자란다. 이제 발칙한? 지역에서의 정책모델 실험들을 충남에서 먼저 펼쳐보길 제안한다. 



[표 6] 공유하기 현장사진



뭘 쓰지?



아~어렵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1조~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2조~